

IT 산업을 보는 새로운 '창'

IT DAILY

"4G 활성화위해 이동사들도 변화 필요"

4G 기술 도입 앞서 음성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 지원 모색해야

2009년 11월 20일 (금) 16:09:04

[싱가포르]차정석 특파원✉cjs@itdaily.kr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가 점차 음성과 데이터, 영상 트래픽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미국 켄밴드의 메멧 발로스 경영총괄 부사장은 20일 빛이벤츠 APAC Press Summit 두번째 세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동통신의 4G에 대해 전망했다.

메멧 발로스 부사장에 따르면 현재 켄밴드는 음성 통화가 24kb의 대역폭만을 사용하는데 비해 영상 통화나 동영상세션의 대역폭 사용량은 300-500kb에 이르고 있다. 또 오는 2010년이면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는 5억을 넘을 것이며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들은 자신의 단말기를 통해 영상 등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 美 켄밴드의 메멧 발로스 부사장(우측)

4G의 발전에는 LTE(Long Term Evolution)와 같이 보다 빠른 모바일 네트워크의 등장인 이 같은 과제를 해결시켜줄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는 한편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주요 재원은 음성 및 SMS이다.

이 같은 현실을 비추어 보면 통신사업자는 4G 기술을 도입하는데 있어 음성 서비스를 계속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사항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통신사업자들이 확장 가능하며 상호운영성을 갖춘 동시에 all-IP 환경에 대비한 IMS 및 LTE 기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VoIP 네트워크 통합 ▲용량 문제 해결 ▲IP 네트워크에서의 세션 관리 및 정책 강화 ▲IP 환경에 해당되는 보안 위협 감지 및 대응 ▲표준화된 아키텍처에서의 네트워크 복잡성 관리 등이 필수로 필요하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줄 또 다른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WiFi 또는 팜토셀 커버리지 형태의 픽스드 모바일 컨버전스(Fixed-mobile Convergence) 역시 하나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미 가정 또는 직장에서 사용하는 기존의 광대역 연결을 이용하는 이러한 로컬 무선 연결은 무선 백홀 부담이 없는 확장성이 높은 경제적인 방법이다.

동시에 보편적인 게이트웨이 솔루션의 새로운 단계는 네트워크 복잡성, 상호운영성, 세션 관리, 정책 집행 및 보안 이슈 해결을 지원한다.

이들은 중대한 보안, 미디어 게이트웨이 및 세션 경계 제어 기능을 단일 네트워크 요소로 통합해 네트워크 복잡성을 줄이고 세션 관리 및 정책 강화 기능 제공을 위해 이상적으로 배치된다.

메멧 발로스 경영총괄 부사장은 "IP를 회선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해 본래 할당된 게이트웨이는 이제 IP 네트워크에서 IP 네트워크로 연결되도록 배치된다"면서 "팜토셀 접속 지점들로부터 공공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모바일 네트워크로 이동시키는 IP터널 형태의 강력한 보안이 제공될 것이다" 고 밝혔다.